남원시보건소, 소방 공무원 심리회복 서비스 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소방 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인 '마음안심버스'를 남원소방서에서 운영했다.

소방 공무원들은 재난 현장 출동 이후 동료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안타까운 사고 현장을 목격하는 등으로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운영된 마음안심버스는 △이동형 스트레스 검사 △우울증 척도 검사 및 상담 연계 △자살 행동 척도 검사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마음 건강 회복을 도왔다.

특히 이번 심리지원에서는 우울, 불안장애,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남원시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마음안심버스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청렴ON 릴레이 캠페인 진행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ON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모든 직원이 함께 청렴 의지를 다지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 청렴 슬로건과 다짐 문구를 릴레이 형식으로 공유하며 개인 사무공간에 청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실천 중심의 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강령과 부패 예방 방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청렴 사례를 나누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렴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검산동행정복지센터, 102번 시내버스 릴레이 탑승 체험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김제역~새만금 33센터까지 102번 시내버스 릴레이 탑승 체험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참가한 직원들은 직접 시내버스를 탑승해 새만금 33센터까지 방문, 김제시 관할의 새만금 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특히 심포항을 지나는 수평선 바다뷰를 마주했을 때는 102번 시내버스를 또 이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난민 태권도 선수 '하디 티란발리푸르' …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32강 진출

'무주 태권도원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이하 그랑프리 챌린지)가 지난달 28일부터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난민팀으로 참가한 '하디 티란발리푸르'(이하 티란발리푸르) 선수가 "꿈이 있다면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해 화제이다.

대회 2일차인 29일, 남자 68kg급에 출전한 티란발리푸르 선수는 64강전에 차이니즈타이베이 HUANG Yu Jui 선수를 2대 1로 꺾고 32강에 진출했다. 하지만 32강전에서 스페인 SALANOVA LISTE Adrian 선수에게 2대 0으로 패했다.

이날 경기를 마친 티란발리푸르는 "현재 이탈리아에서 다른 태권도 선수들과 훈련을 하고 있고 박사 학위 과정을 공부 중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지금까지 태권도 선수로서 여정에 대한 소감도 밝혔다.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은 꿈만 같았다. 6살 때 꾸던 꿈을 20년이 지나서 파리에서 이루었다. 난민으로서 조국을 탈출해 이탈리아로 가는 여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태권도를 수련하는 하지 않든 어느 누구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꿈이 있다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목적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지구촌 아이들 모두가 웃고, 자유롭게 말하고, 뛰어 놀수 있는 환경! 즉, 차별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2028년 LA 올림픽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이다. 그것으로 난민 선수들에게 희망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선수가 되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난민팀은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의 초청으로 태권도원을 찾아 '난민선수 태권도 캠프'에 참가한 후,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병원 암 예방 직무연수 프로그램 실시

교사 대상 전문교육 통해 올바른 암 정보 전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암 예방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소장 정연준 교수)가 주관한 이번 연수는 지역사회에 올바른 암 정보를 확산하고,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소아·청소년기에 건강한 습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 8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진행됐으며, 전북지역 교사 39명이 참여해 암 예방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소아·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교육 역량을 키웠다.

교육 과정은 △국민 암예방 수칙 이해 △여성암 및 소아암의 특성 △상황별 소아청소년 응급처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암 예방 △소아비만·당뇨 예방 △소아암 환자의 재활 및 운동요법 △힐링 원예 테라피 등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 전문 의료진 9명이 강사로 참여해 교사들에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과 방법을 전달했다.

정연준 전북지역암센터 소장은 "이번 연수는 교육 현장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암 예방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건강한 삶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앞으로도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경찰서·정읍 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달 29일 정읍 소상공인연합회와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사칭하여 영업 중인 가게를 대상으로 고액의 물품을 대리구매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노쇼(NO-SHOW)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쇼 사기 유형 정보 공유 △피해 접수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예방 홍보 및 캠페인 공동 전개 △소상공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소방서, 어린이 눈높이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고창소방서는 지난달 29일 고창 소재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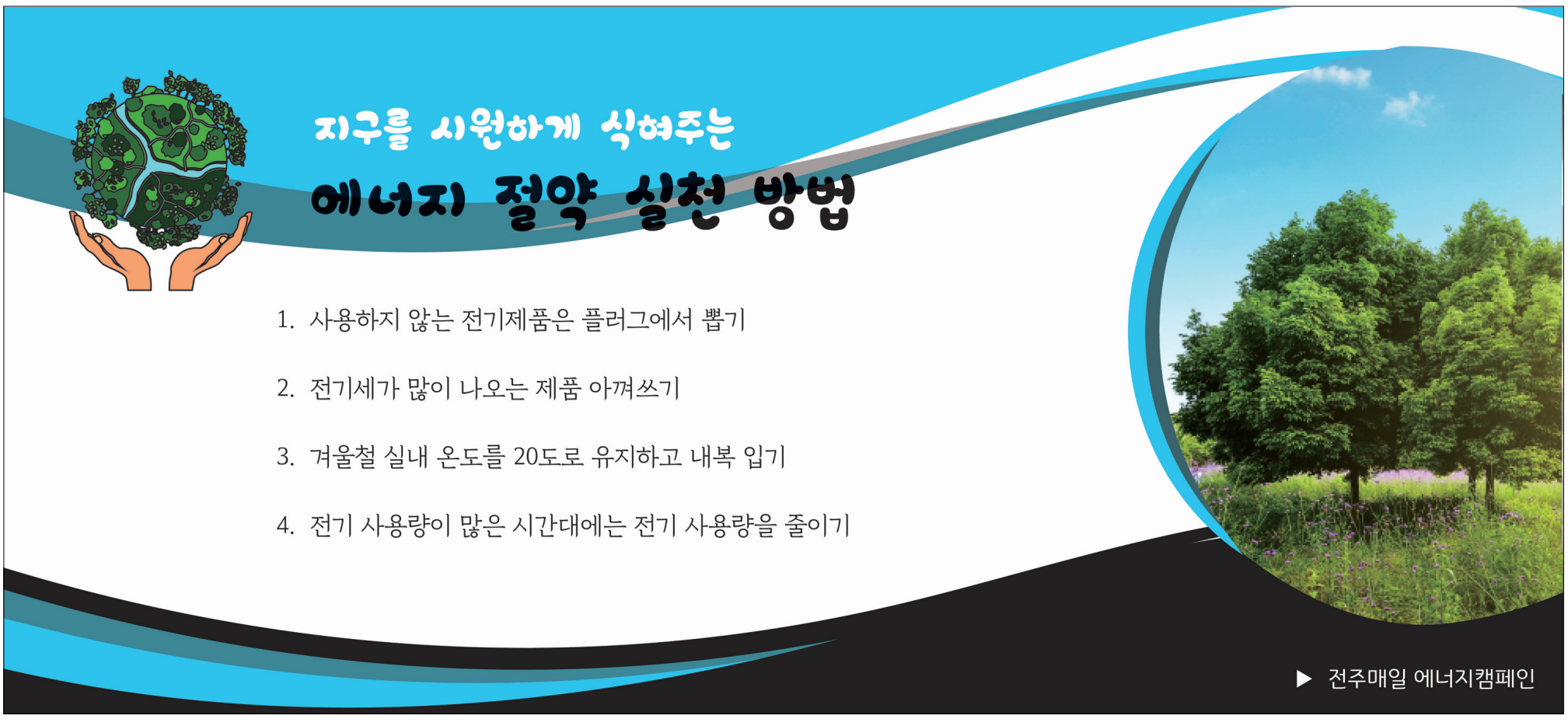
이날 소방서를 방문한 어린이들은 먼저 소방차에 직접 탑승체험을 하며 소방관의 역할을 생생하게 느껴보았다. 이어 물줄기를 뿜어내는 방수시연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화재 진압 활동의 중요성과 현장의 긴장감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교육은 단순한 관람에 그치지 않았다.

아이들은 소방관의 안내를 따라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며 위급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익혔다. 특히 교사와 함께 한 실습은 안전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 죽산면 의용소방대, 어려운 이웃에 성금 기탁

김제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남·여 의용소방대(대장 김낙현, 정미향)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는 남·여 의용소방대장과 대원들, 면 관계자가 자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성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저소득층 반찬나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남·여 의용소방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식탁에 따뜻한 밥 한끼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뿐만 아니라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